

아시아 혁신대학 '국립대 1위'

전북대, 지역민·지자체·정치권 합심 10년 노력 결실 국내 종합대학 Top10 달성... 특히 등록 아시아 8위 2018 라이덴랭킹에 논문 비율 3년 연속 국내 국립대 1위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는 최근 로이터가 선정한 2018년 아시아 최고 혁신대학 평가에서 국립대 1위에 올랐다고 10일 밝혔다.

이 평가는 로이터와 글로벌 혁신 데이터 분석 기업인 클라리베이트 애널리틱스와 공동으로 매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더웬트 이노베이션(Derwent Innovation)의 특허 출원 데이터와 웹 오브 사이언스(Web of Science)의 피인용 지수를 바탕으로 총 10개의 지표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학 중 첨단 과학연구를 이끌고 신기술 개발 성과가 우수한 대학 75개가 아시아 최고 혁신대학에 선정됐다.

국내 대학 가운데는 20개 대학이 선정됐는데, 전북대가 국립대 법인 서울대를 제외한 거점 국립대 가운데 1위에 랭크됐다. 국내 종합대학 가운데는 10위 올랐다. 전남대와 부산대, 경북대 등이 뒤를 이었다.

전북대는 화학약품과 반도체, 제

약·생명공학 분야 등에서 특허 출원 대비 등록률이 81%로 아시아 8위에 오른 것을 비롯해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등록된 총 특허 출원 수에서도 아시아 33위에 랭크되며 전체적 순위 상승을 주도했다.

또한 산업계 종사자들의 공저 논문 비율에서 아시아 38위에 오르며 활발한 산학협력을 하고 있는 대학으로도 손꼽혔다.

전북대는 최근 논문의 질적 수준을 평가한 2018 라이덴랭킹에서도 상위 10% 논문 비율이 3년 연속 국내 거점 국립대 1위에 올랐고, 이번 아시아 혁신대학 평가에서도 1위에 오르며 국내 거점국립대학 가운데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로이터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전북대 연구팀은 최근 다양한 색상의 빛을 디스플레이할 수 있고 원격 조정 가능한 유기 발광물질을 개발했고 LCD TV 제조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도 개발했다"며 "또한 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스포

케인연구소와 공동으로 에너지 자원 개발과 광산 안전 관련 기술 공동 연구에 합의하는 등 활발한 연구를 하는 대학"이라고 소개했다.

전북대가 국내 거점국립대학 가운데 선두에 오르게 된 것은 지난 10여년 동안 대학 구성원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 지역민들의 성원과 지자체, 여야를 넘나드는 지역 정치권의 지원 등이 맞물려 이뤄진 것

전북대는 수치로 환산되는 성과 위주의 발전보다는 대학이 유일하게 갖고 있고 가장 잘 할 수 있으며, 했을 때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고유의 브랜드를 찾아 가치를 높여가는 것을 중장기 대학발전 전략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전략이 글로벌 대학평가에도 꾸준히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 대학측의 분석이다.

이남호 총장은 "전북대학교가 수년째 각종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데에는 교수와 직원, 학생 등 대학 가족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지역민들의 성원, 그리고 정치권의 지원 등이 조화를 이뤄왔기에 가능했다"며 "우리대학만이 갖고 있고 잘할 수 있으며,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브랜드화 해 가치를 높여간다면 더욱 강한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원광대, 후마니타스 장학생 선발 시상

13회 걸쳐 3507명에게 총 26억6270만원의 장학금 지급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종)가 2018학년도 1학기 후마니타스 장학생을 선발하고, 지난 7일 1억 원의 장학금과 상장을 수여했다.

후마니타스 장학생 선발을 위한 부문별 대회 및 평가에는 일반계열 및 의·약학계열에서 총 823명의 학생이 응시했으며, 독서퀴즈 40명, 독서시험 104명, 독서논술 117명, 독서토론 8팀(16명) 등 총 277명이 장학생으로 선발됐다.

지난 2011년 신설된 원광대 후마니타스 장학금은 학생들이 인문학적 소양과 글쓰기 능력 향상을 비롯해 기존 장학금과 차별화된 장학혜택을 위해 마련됐으며, 지금까지 13회에 걸쳐 3,507명에게 총 26억 6,27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됐다.



원광대학교가 2018학년도 1학기 후마니타스 장학생을 선발하고, 지난 7일 1억 원의 장학금과 상장을 수여했다.

학생들은 지난 3월 미리 발표된 인문영역의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 사회영역의 '니쁜 사마리아인들', 자연영역의 '동물해방', 예체능 영역의 '오주석의 한국의 미 특강' 등 4권의 선정도서를 읽고 각 부문에 응시했으며, 2인 1조로 팀을 이뤄 경쟁한 토론대회는 비판과 옹호 팀의 입장을 정해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회 결과 독서시험부문 대상은

역사교육과 허순용, 치의학과 박상진 학생이 차지해 각각 150만 원의 장학금을 받고 독서논술부문 대상은 국어국문학과 김영민, 역사교육과 이문호, 치의학과 오연주 학생이 차지해 각각 15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이어 독서토론 부문에서는 치의학과 김민결, 치의학과 맹홍재 학생이 조를 이룬 '하이비스키' 팀이 대상을 차지해 500만 원을 받았고, 독서퀴즈부문 대상은 경찰행정학과

홍지희 학생이 차지해 12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조영철 후마니타스위원장은 "현대 사회의 인재는 전공지식과 더불어 인문학적 소양도 우선시 되고 있다"며, "지속해서 후마니타스 장학 사업을 펼쳐 학생들의 자긍심을 키우고, 인문학적 소양을 강화함으로써 학생들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우병희기자

도교육청, 초·고 8개교 교장 공모학교 지정

초빙 6·내부 1·개방형 1교... 14일까지 서류 접수 재공고까지 지원자 없을 경우 지정 철회

전라북도교육청은 도내 초등학교 7교와 고등학교 1교 총 8교를 2018.9.1.자 임용 교장공모제 학교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상 학교는 '초빙형 6교(개정초·이리중앙초·여산초·원평초·가평초·고부초), '내부형' 1교(시산초), '개방형 1교(이리공업고) 등 총 8교다.

교장공모제 추진 일정은 지정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1차 공고가 지난 4일부터 14일(11일간)까지이며, 1차 지

원자가 2명 미만인 경우 2차(재)공고를 오는 15일부터 19일(5일간)까지 하게 된다. 재공고까지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지정을 철회하게 된다.

지원자는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학교운영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직접 공모학교에 인편 접수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접수 마감일 다음날 익명으로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와 학교경영계획서를 해당학교 및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1차 심사는 지정학교에서 6월 25~29일 중 학교가 지정한 날에 실시되며 2차 심사는 학교추천자를 대상으로 지역교육지원청 또는 도교육청에서 7월 3~5일 중 실시된다.

도교육청은 '공모교장 심사역량 강화를 위한 사전연수'를 지정학교 교장, 학교운영위원장,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교육자치를 강화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운영을 위한 리더십을 갖춘 능력 있고 열정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교육청 2018 남북교육교류 학생상상제안마당

전라북도교육청은 9일 도내 중·고등학교 73명이 교육청 2층 대강당에서 '평화공간, 통일상상! 남북교육교류 학생제안마당'을 펼쳤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남북교육교류와 관련한 조례에 근거하여 기금을 조성하였다. 2011년 조례가 제정된 이후 지난 8년 동안 조성된 기금은 총 8억 5,000만원

에 이른다.

한반도 평화의 기류를 타고 남북교육교류 재개가 가능해진다면 우리 학생들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학생들이 상상하고 토론하는 학생상상제안마당은 분단 73년, 광복 73년을 맞이하여 학생 73명이 함께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대, 도내 기업 초청 교류의 장 마련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전북권 기업들을 대학에 초청해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의 장인 '2018년도 전북권 기업 초청 소통간담회'를 오는 12일 열린다.

전북대 취업지원과와 LINC+사업단이 공동 주관하는 이날 행사에서는 전북권역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과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CEO 및 인사담당자들을 초청해 학생 취업과 대학기

업 간 상생 방안 등이 긴밀하게 논의된다.

12일 오후 5시 전북대 캠퍼스 투어를 통해 오래 전 졸업한 동문들에게 대학의 변화상을 보여주고, 전북대를 처음 방문한 기업인들에게는 대학의 위상과 미래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오후 6시부터 시작되는 본 행사에서는 전북대 이남호 총장과 보직

교수 행사에 참여한 기업인들, 그리고 전북대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네트워킹이 이뤄진다.

또한 전북대 상과대학 봉현철 교수가 '디지털로딩으로 일 잘하는 방법'이라는 저서를 중심으로 특강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전북권역 기업·기관과 대학과의 지속적인 유대관계와 소통을 위해 이 행사에 관심이 있거나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전북대 취업지원과(063-270-4885)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훈기자

도교육청, 초·중·고졸 검정고시 시행 계획 공고

전라북도교육청은 오는 8월 8일 수요일에 실시될 2018년도 제2회 초·중·고졸 검정고시 시행 계획을 지난 8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이번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6월 18일부터 22일까지 접수처에 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초졸의 경우 시·군 교육지원청(전주, 완주 제외)과 도교

육청 1층 행정자료실에서, 중졸·고졸의 경우 도교육청 1층 행정자료실에서만 원서를 접수한다.

현장접수가 어려운 응시자는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kged.je.gkr)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수하면 된다. 단, 온라인 접수의 경우 1일 단축된 6월 18일부터 6월 21일까지 접수를 진

행하니 주의가 요구된다.

응시자들은 원서접수를 위하여 최종 학력증명서, 여권용 사진 2매, 신분증을 준비하면 된다. 또한 시험장소를 7월 20일, 합격자 발표는 8월 27일에 발표하니 응시자들은 해당 날짜에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교육청 홈페이지나 교원인사과(☎ 063-239-3308)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재훈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